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23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산물원종장장	강태완	☎ 760-7200
		업무담당자	김경표	☎ 710-721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도, 내년 봄 재배용 무병 씨감자 8톤 생산한다

- 농가 수요 반영... ‘탐나’ · ‘대지’ 씨감자 각 4톤 생산 목표 -
- 9월 수경재배 하우스 정식...생육관리 거쳐 12월부터 수확 예정 -

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2027년 봄 농가재배용 수경재배씨감자 8톤 생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다.

○ 이번 작기에는 ‘탐나’와 ‘대지’ 품종의 멍아묘 6만 4,000주를 수경재배 하우스에 정식해 약 3~4개월간 재배할 예정이다. 품종별 생산 목표는 ‘탐나’와 ‘대지’ 각 4톤이다.

○ 기존에는 ‘탐나’의 생산 비중이 높았으나, 씨감자 공급 과정에서 확인된 ‘대지’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를 고려해 생산 비율을 조정했다.

□ 씨감자 생산은 지난 8월 원원종* 파종과 멍아묘* 생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.

* 증식체계: 기본식물 → 원원종 → 원종 → 보급종

* 멍아묘: 씨감자에서 발생한 싹(멍아)를 분리해 일정 기간 키운 어린 묘

○ 8월 상순 원원종 씨감자를 파종해 멍아 발생을 유도한 뒤, 육묘실에서 약 한 달간 관리해 수경재배용 멍아묘를 생산했다.

○ 육묘를 마친 멍아묘는 9월 수경재배 하우스에 정식했으며, 생육단계에 따라 양액 공급량과 농도를 조절하고 뿌리 활착과 지상부 생육, 괴경(감자)의 형성과 비대 상태 등을 점검하

며 수확기까지 적정 생육을 유지할 계획이다.

- 씨감자는 오는 12월부터 수확해 규격별 선별과 저장 과정을 거친 뒤 2027년 봄 도내 감자 재배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.
- 농산물원종장은 수확기까지 생육 상태를 면밀히 관리해 목표 물량을 확보하고, 농가가 필요로 하는 씨감자를 적기에 공급할 방침이다.
-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농가 수요를 고려해 이번 작기에는 ‘대지’ 물량을 확대했다”며 “수확기까지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우량 씨감자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